

〈隨 想〉

새로운 價值觀을

徐 澄 錫

近來 우리 現實은 伝統的인 倫理 道德觀이 여지 없이 무너지고 主體性은 忘却되고 그 方向마저 잊어가고 있음을 볼 때 悲哀를 느끼게 된다.

우리 社會가 이같은 現象을 띠게 된데에는 여러 가지 原因이 있겠으나 가장 중요하게 指適되는 점은 西歐思想에 대한 無分別한 陶醉가 아닌가 본다.

즉 힘은 왜 必要한가 그것은 物質을 獲得하기 위하여 必要한 것이다. 따라서 힘은 物質万能主義 바로 그것이다.

西歐文明은 人間의 精神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反面 物質의 面에 置重하므로서 人間의 價值를 붕괴시켰다. 이같은 思想이 濾過過程을 거치지 않고 우리 社會에 그대로 흘러 들어옴으로서 倫理 道德의 墓落은 西歐社會 以上으로 심한 樣狀을 띠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甲이라는 사람이 乙에게 不正한 일을 付託하기 위하여 몇 천원의 뇌물을 주었다면 이경우 人間의 價值는 몇천원에 不過한 것이다.

우리 뿐만 아니라 世界的으로 지나친 物質文明에 치우치다 보니 人間들은 物質獲得에 血眠이 되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힘도 아니요 法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指導者의 良心의in 精神姿勢에서 만이 可能하다고 본다.

深奧한 研究보다, 即興的in 試行錯誤로는 도저히 解決할 수 없는 難題에 直面해 있다. 이처럼 複雜多端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오늘날 社會에 蔓延된 不條理 狀態는 하루속히 根本的으로 治療되지 않으면 안된다. 不條理를 없애야 하겠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国政을 刷新하고 社會氣

風의 清化運動이 展開될 때마다 先決問題로 등장하는 것이 不條理 문제다. 이 痘疾病을 고치기 위해서는 法令도 罰則도 소용 없다고 본다. 모든 国民의 建全한 精神風土와 올바른 價值觀의 정립만이 先行문제이다. 오늘날의 各種 不條理는 바로 무서운 利己主義와 타락한 国民論理에서 비롯된 것 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自身의 잘못은 반성하려 하지 않고 他人의 잘못에만 視線을 모으면서 不條理 一掃를 부르짖어 왔다. 公務員은 一般市民을 걱정하고 一般市民은 公務員을 걱정한다. 늙은 世代는 젊은 世代를, 젊은 世代는 늙은 世代를 각각 비난한다. 그러나 잘못은 어느 世代 어느 職業에 있는 것이다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責任이 있는 것이다. 결국 合理主義의 思考나 行為가 배척 당할 때 無法과 不條理가 橫行하게 되는 것이다.

한 社會의 風土를 決定하는데에 결정적인 구실을 하는 것은 그 社會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所有코자 하는가에 달려있다.

즉 강렬한 欲求의 対象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社會의 意識構造와 精神風土가 決定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社會는 金錢万能主義에서 비롯된 여러가지 副作用이 너무도 많다. 어느 面에서 이건 이제와서 不條理除去는 不正한 者를 处罰하는 것으로 끝일 것이 아니라 精神風土의 改善, 創造하는 次元으로 意識構造를 고쳐가야 하겠다.

〈本會 副會長〉